

광주시, 소상공인 지원 공공 배달 앱 내년 출시

전북 군산·인천·서울 찾아 운영 벤치마킹 광주 상생카드가맹점과 연계 방안 등 마련

광주시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전국적으로 확산 중인 공공 배달 앱을 개발하기로 성공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대형 배달 업체가 주도하고 있는 음식배달 업계에서 배달 수수료 등이 소상공인들에게 적잖은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공공 배달 앱을 출시하기로 하고 운영 방안 등을 구상하고 있다.

광주시는 최근 전국 최초로 공공 배달 앱 '배달의 명수'를 출시한 전북 군산을 비

롯해 인천 서구, 서울 등을 찾아 운영·준비 실태를 벤치마킹했다. 공공 배달 앱은 서울, 경기 등 광역자치단체는 물론 강원 춘천, 충북 제천, 부산 남구 등 기초단체도 도입을 추진하는 등 전국화하고 있다.

시는 공공에서 직접 개발해 운영할지, 입찰을 통해 선정된 사업자에게 운영을 맡길지를 검토하고 있다.

광주시는 특히 가맹점과 이용자의 수수료 부담 경감, 개발·운영 등에 들어갈 비용도 추산하고 있다. 시는 다른 자치단

체 선행 사례 분석 내용 등을 토대로 광주 상생 카드 가맹점과 연계하는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운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광주시 북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김민국(38)씨는 "코로나19 여파로 식당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형배달 업체의 배달 수수료마저 높다 보니 폐업을 고려해야 할 정도"라면서 "공공 배달 앱 개발을 통해 배달 수수료가 대폭 낮춰진다면 영세 소상공인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다만 기존 대형 업체 중심의 배달 시장이 견고한데다, 성공을 위해선 배달 앱 이용자인 시민들의 절대적인 동참이 필수

적이라는 점은 부담이다. 배달 앱 시장 특성상 기존 업체보다 편의성이나 가격 할인 등을 차별화하지 못할 경우 시장 진입과 동시에 도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코로나19 여파로 배달 음식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배달 기사 부족, 수수료 부담으로 지역 상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고려해 지자체마다 공공 배달 앱 개발에 발 벗고 나섰다"며 "소상공인은 지역 경제 근간이자 버팀목인 만큼 이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순환도로 친환경차 통행료 2021년까지 '절반'

감면 기간 연장 조례안 입법 예고

광주 유료도로인 제2순환도로를 이용하는 친환경 차는 2021년까지 통행료를 감면받는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광주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및 운용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친환경 차 보급 확산과 친환경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통

행료 감면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기간은 올해 12월 3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늘어났다. 감면 대상은 사용 추소가 광주인 전기·태양광·연료전지·하이브리드(배기량 1600cc 미만) 차량이다. 소유주는 광주시 도로에서 카드를 발급받아 제2순환도로를 이용할 때 제시하면 통행료 절반을 할인받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사회적 비용 큰 화력발전세 인상하라"

전남 등 5개 광역단체 공동 건의

전남도를 비롯한 전국 5개 광역단체 1200만 시민이 '화력발전 지역발전세' 서울 인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남도는 22일 "인천, 강원, 충남, 경남 등 5개 시·도가 화력발전세 세율 인상 촉구 공동건의문을 시·도지사 명의로 채택, 최근 국회의장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건의문은 화력발전이 국내 발전량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며 원자력보다 작·간접 사회적비용은 훨씬 큰 데도 지역 발전시설세 세율은 상대적으로 낮아 각 지방정부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채택했다.

화력발전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은 호흡기 질환이나 심뇌혈관 질환 등 주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대기 및 수질 오염, 발전소 주변 재산 가치 하락 등 높은 외부비용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경기연구원 지난 2016년 내놓은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동건의문 채택 참

여 5개 시·도의 경우 화력발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17조 2000억원이지만, 화력발전세에 대한 지역발전시설세 세율은 1kWh 당 0.3원으로, 원자력발전 부과 세율(1kWh 당 1.0원)의 30% 수준에 불과하다. 지역발전시설세 과세 근거의 경우 환경오염 피해 지역 복구와 예방을 위한 재원 확보인데도 더 많은 외부비용을 야기하는 화력발전이 원자력보다 더 적은 세율이 부과되고 있는 것이다.

전남도 등 5개 광역단체는 "화력발전으로 인한 피해 복구와 예방을 위해 각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열악한 지방재원 여건상 관련 예산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주민들의 피해 보상과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해 화력발전세 인상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되기를 건의 드린다"고 덧붙였다.

전남도를 비롯한 5개 광역단체와 함께 화력발전 소재 10개 시·군도 '전국 화력(석탄)발전 세율 인상 추진 실무협의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며, 화력발전세 세율 인상을 위한 공동전선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데이터 규제자유지역 지정 데이터 산업 활성화해야"

AI 중심도시 광주만들기 추진위

인공지능 중심도시를 조성 중인 광주시를 데이터 규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고 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광주에서 열린 '인공지능 중심도시 광주 만들기 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들은 인공지능 도시 조성을 위해 규제 완화와 필요하며 이 같은 의견을 냈다. 회의에서는 지난해 9월 추진위 출범 이후 주요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제도 마련 방안을 논의했다.

위원들은 회의에서 인공지능 개발에 필수적인 데이터 품질 확보, 수집·가공·분석 전문 인력 양성 등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이용섭 광주시장이 22일 오후 광주시 서구 홀리데이인 호텔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중심도시 광주만들기 추진위원회 4차 회의'에 참석해 이정한 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및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 '스타트업 성장촉진' 투자설명회

522억 펀드 운영 안돼 미스매치 발생...펀드사·창업자 연결

전남도가 오는 11월까지 지역 스타트업 기업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펀드사와 창업자를 연결할 '스타트업 성장촉진'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

현재 스타트업 등 벤처창업 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 전남도가 출자한 '전남 엔젤투자 매칭 펀드' 등 5개 펀드 운영자들이 투자 기업을 찾지 못하지만, 정작 신생 기업들은 자금난으로 도산 위기에 있는 등 미스매치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도가 투자한 펀드의 총 규모는 552억원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자금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제대로 지원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전남도의 판단이다.

최근 신재생에너지와 바이오화학, 자동차 부품, 융복합산업 분야 등 성장잠재력이 있는 기업 육성을 위해 전남도가 출자한 5개 펀드 운영상황을 점검한 결과 펀드 운용사는 마땅한 투자 대상기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실제 자금지원이 필요한 스타트업 기업들의 경우 자금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스타트업 성장 촉진 투자설명회를 통해 펀드 운용사와 지역 신생기업들이 직접 만날 수 있는 장을 만들기로 했다.

이번 설명회는 서부·동부·중부권으로 나눠 총 3회에 걸쳐 소수·정예 타깃기업을 대상으로 소규모 행사로 개최된다.

지역별로 서부권은 23일 목포 신안비치 호텔에서, 동부권은 10월 13일 순천 에코그라드 호텔, 중부권은 11월 5일 나

주 씨티 호텔에서 열리며, 코로나19로 인해 행사 참석 인원은 35명으로 제한된다.

설명회를 통해 전남도가 출자한 5개 펀드 운용사는 펀드 투자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최소 요건 등을 설명하고, 참여 기업은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소개와 아이템 사업화 계획 등을 프리젠테이션으로 설명한 후 질문·답변 형식으로 투자요청 사항을 상담하게 된다.

안상현 전남도 경제에너지국장은 "기술력과 성장성을 갖춘 도내 예비창업자와 스타트업 기업들이 이번 투자설명회를 통해 창업과 기업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영세업·청년창업자 무료 간판 설치

전남도는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영세업자와 청년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간판을 무료로 교체하거나 설치해주는 '성공을 깨우는 전남 무료 간판 지원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추진한다. 도내 영세업자와 청년 예비 창업자 총 45개소가 대상이다.

간판 교체·설치는 올해 10월 펼쳐질 옥외광고대전에서 우수 간판디자인으로 선정된 광고업체에게 시공권을 부여하는 등 도내 광고업체에게도 경제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사업 대상은 간판이 노후된 연매출 4800만원 이하 도내 영세사업자 또는 도내 거주 만 39세 이하의 청년사업 창업프로그램을 이수한 청년사업자 등이다. 시군의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대상자를 선정

해 개소수 최대 3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된다. 이번 사업은 '제18회 전라남도 옥외광고대전' 창작 디자인 '업체부문' 분야에서 선정된 디자인을 활용해 실제 간판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로 18회째를 맞는 전라남도 옥외광고대전은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광양 커뮤니티센터에서 개최되며, 디자인 공모전과 시상식, 우수 작품 전시회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병주 전남도 관광문화체육국장은 "이번 무료 간판 지원 사업은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영세 소상공인의 성장과 재도약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6년
1954~2020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Passion Vision Truth

열정
꿈
진리로 증명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2021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학 부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 열	모 집 단 위		모 집 인 원	
	학 과	수 시	정 시	
인 문 사 회	신 학 과	30	15	
	한국어교육학과	2	2	
	복지상담융합학부 (사회복지학 전공 / 교정행생교육상담학 전공)	31	3	
사 범	유아교육과	7	3	
예 능	음 악 학 부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23	6	
	총 계	93	29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학부 전형일정

· 수시모집 : 원서접수: 2020. 9. 23(수) ~ 28(월)
· 전 형 일: 2020. 10. 12(월)

·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21. 1. 7(목) ~ 11(월)
· 전 형 일: 2021. 1. 18(월)

임학문의 ▶
학부 0621 605-1114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 36